

일·가정 양립 관련 뉴스에 대한 온라인 댓글 분석 -네이버 포털 기반 텍스트 마이닝 접근-

A Text Mining Analysis of Online News Comments on Work-Family Balance:
Evidence from Naver Portal Data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가족학과
박사수료 윤 소 라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장 진 경

Dept. of Family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h.D. candidate Yoon, Sora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Chang, Jin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초록〉

최근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복합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일·가정 양립'이 핵심 사회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에 게시된 약 79만 건의 온라인 댓글을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다단계 분석을 통해 대중 여론의 흐름과 담론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도별 댓글량 분석 결과, 2014년, 2016~2017년, 2024년에 댓글 수가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시기의 정책 논의 활성화와 온라인 여론 간의 밀접한 연동성을 시사한다. 이어진 TF-IDF 분석과 지칭어 기반 동시출현 분석에서는 '정부', '여성', '남성', '아이', '일' 등 정책, 젠더, 가족 구조와 관련된 단어들 높은 중요도로 도출되었고, '일·가정 양립' 담론이 복합적인 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다섯 가지 주요 담론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토픽 간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저출산 문제 인식'이 중심 연결어로 작용하면서 상이한 주제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각 담론에 대한 대표 댓글 원문 분석을 병행한 결과, 온라인 참여자들이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명확히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형성된 대중 담론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통합 분석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사회 인식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가족정책, 성평등 정책, 저출산 대응 전략의 수립에 있어 실천적이고 여론 기반의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지닌다.

주제어: 일·가정 양립, 온라인 댓글, 텍스트 마이닝, LDA 토픽 모델링, 여론 분석

* 주저자: 윤소라(ysrsk@sookmyung.ac.kr), <https://orcid.org/0009-0004-4155-1965>

** 교신저자: 장진경(jinkyung@sookmyung.ac.kr), <https://orcid.org/0009-0004-2087-8512>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complex structural changes, including ultra-low birth rates, increased male participation in caregiving, and the flexibilization of the country's labor market. Work-life balance has emerged as a central issue in public discourse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public opinion has flowed and how the discourse surrounding this topic has been structured by collecting approximately 790,000 online comments from a database of news articles on Naver, South Korea's largest online portal, posted between January 2006 and February 2025, and analyzing them using multi-level text-mining techniques. An analysis of comment volume by year revealed significant surges in 2014, 2016-2017, and 2024, corresponding with periods of heightened policy activity. This suggest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policy developments and online public opinion. Using TF-IDF and co-occurrence analysis based on designated keywords, the study identified several core terms found in the comments, such as "government", "women", "men", "children", and "work". Discourse on work-life balance is formed within a complex socio-institutional context. Subsequent LDA topic modeling yielded five major themes related to work-life balance. A topic network analysis revealed that perceptions of low birth rates served as central connectors linking topics such as gender equality, childcare, and family policy. Furthermore, analyses of representative comments within each topic confirmed that online participants articulated concrete and realistic concerns regarding the challenges of achieving work-life balance in Korea. By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of public discourse in the digital sphere, this study provides a multifaceted understanding of societal perceptions of work-life balance in Korea. It offers practical and public opinion-driven insights for the design of future family policies, gender equality measures, and population strategies, thereby contributing meaningfully to academic and policy-oriented discussions.

Key Words: Work-family balance, Online comments, Text mining, LDA topic modeling, Public opinion analysis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의 전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가정 양립'은 핵심 사회 의제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 박주희, 김선미, 2024; 윤원상, 2023; 황인도, 2024a; 2024b). 특히 팬데믹 이후 태백근무 및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돌봄 공백의 가시화는 '일'과 '가정'의 경계를 급속히 허물었고, 이는 관련 정책 수요와 사회적 기대를 단기간에 급격히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태연, 2023; 손영미, 황혜영, 2022; 오혜은, 2024; 김민섭, 2023; 박수경, 2024; 오영민, 손현기, 2023).

'일·가정 양립'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노동부, 2008; 대한민국정부, 2006; 여성가족부, 2008). 그러나 제도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는 여전히 낮고, 제도와 현장 적용 간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혜경, 2011; 심미승, 설선미, 2014; 유계숙, 2012; 임다희, 탁성숙, 이선우, 2018). 오늘날 일·가정 양립은 단순히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육아 정책 차원을 넘어,

성별 돌봄 부담의 재구성, 가족 안정성,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나아가 국가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다차원적 사회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김영미, 2024; 박민정, 2019; 박원순, 2021; 엄혜경, 성상현, 2017; 최은미, 강제상, 2021).

그럼에도 정책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부족, 성별 수용성의 비대칭, 법·제도와 근로환경 간의 괴리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박귀천, 2021; 박수경, 2024; 이수인, 2023). 이러한 한계 속에서 최근에는 포털 뉴스 댓글 등 온라인 공론장이 여론 형성의 주요 경로이자 사회 인식을 드러내는 비정형 여론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김경식, 2025; 박지선, 이한울, 2025; 이준석, 성민지, 박찬민, 2025; 임민정, 2024; 장윤재, 2023). 온라인 댓글은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한 대중의 정서와 경험을 자발적으로 표출하는 장으로, 기존 설문조사나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드러낸다(김경식, 2025; 이준석 외, 2025; 임민정, 2024; 장윤재, 2023).

특히 익명성과 자발성은 댓글을 공공담론의 한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익명성은 사회적 불이익 우려 없이 솔직한 의견 표출을 가능하게 하고, 자발성은 비유도적 언어를 통해 개인의 해석과 의미 구성을 반영한다(김경식, 2025; 장윤재, 2023; 임민정, 2024). 물론 온라인 댓글이 전체 인구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갈등의 양상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담론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김경식, 2025; 이준석 외, 2025; 임민정, 2024; 장운재, 2023).

기존 일·가정 양립 연구들은 정책 효과성 평가, 제도 수요 파악, 성별 격차 측정 등을 중심으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해 왔다(강민희, 김민선, 2025; 임정하, 조옥선, 2024; 장기용, 2024).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형화된 자료와 분석틀에 주로 의존해,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여론의 맥락과 갈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층위, 성별·세대별 인식 차이, 사회문화적 갈등은 양적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에, 보다 입체적이고 비정형 데이터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정형화된 자료와 분석틀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여론의 맥락과 갈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층위, 성별·세대별 인식 차이, 사회문화적 갈등의 양상은 양적 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보다 입체적이며 비정형적인 데이터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 전환 속 '일·가정 양립' 관련 온라인 여론의 주요 관심사와 갈등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가 2004년 도입 이후 2006년부터 이용량이 급증하며 온라인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공식 정책 의제로 채택해 제도 논의를 본격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기간 네이버 포털에 게시된 관련 뉴스 기사에 달린 약 79만 건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정량적 텍스트 마이닝과 정성적 해석을 통합한 다단계 분석 체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법으로 시기별 핵심어와 그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키워드 변화와 사회적 관심사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어, 지정어 기반 동시출현어 분석을 통해 댓글 내 단어 간 의미 구조와 맥락적 관계를 규명하고, 핵심어와 개념 간 관계망, 주제별 담론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순 빈도를 넘어서는 의미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잠재 주제 구조를 추출하고, 각 토픽별 대표 댓글을 분석하여 대중이 제기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정성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대중이 어떠한 쟁점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갈등과 수요가 표출되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정책 수요자로서의 대중 인식과 제도 간 괴리를 드러내어,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성평등 정책·저출산 대응 전략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가정 양립' 관련 뉴스의 온라인 댓글에서 주요 키워드로 도출된 단어들은 어떤 주제적 관심사나 사회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일·가정 양립' 관련 뉴스 댓글에서 도출된 주요 담론 주제들은 무엇이며, 이들 토픽은 온라인 여론의 담론 구조에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일·가정 양립'은 개인이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태를 의미한다. Greenhaus & Beutell(1985)이 '일·가정 갈등' 개념을 통해 처음 학문적으로 제시한 이후, Esping-Andersen(1999), OECD(2007) 등을 거치며 해당 개념은 복지국가와 노동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에는 삶의 질, 가족 안정성, 기업의 생산성, 국가의 지속가능성 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다차원적 사회 이슈로 확장되고 있다(박중서, 김문길, 임지영, 2016; Frone, 2003).

한국에서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당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이를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 목표로 공식화하였으며,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이후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확대만으로는 실제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단순한 제도적 설명만으로는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의미화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의 한계 속에서, 학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의 실제 인식과 의미 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담론 분석이 대안적 방법론으로 주목받았다(강은애, 2022; 김경례, 2011; 김선미, 안희란, 2016; 이정은, 유흥준, 2017).

담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 체계로, 사회 현실을 조직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Foucault,

2002; Fairclough, 1995). 사회는 담론을 통해 어떤 사안을 문제로 인식하고,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현실을 구성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은 단지 제도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유통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적 시각에서, 이정은과 유홍준(2017)은 한·중·일 비교를 통해 각국의 성역할 인식이 일·가정 양립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갈등을 고착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강은애(2022)는 저출산 담론을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적 산물로 보고, 그 담론이 정책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경례(2011)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정책이 저출산 대응 중심의 생산·남성 중심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생산 가치와 여성 관점을 반영한 담론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선미와 안희란(2016)은 육아휴직 경험자 분석을 통해 '시간 갈등'과 '역할 갈등'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조명하며, 대안적 모성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담론 연구가 디지털 공론장에 축적되는 대규모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확장되고 있다. 포털 뉴스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기존 설문조사나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정서적 반응과 경험 기반 인식을 담고 있어 분석 가치가 높다(김경식, 2025; 박지선, 이한울, 2025).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연구들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여론 흐름과 담론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F-IDF 기반 핵심어 분석, 동시출현어 네트워크 분석,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 등이 활용되며, 이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사회 인식 구조를 시각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데 효과적이다(박상언, 강주영, 2023; 윤태일, 이수안, 2020; Feldman & Sanger, 2007).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는 감성 분석이나 단기적 여론 탐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김하영, 김민석, 2024).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뉴스 댓글의 긍·부정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정서를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텍스트에 내포된 의미 구조나 맥락, 그리고 쟁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특히 장기간 축적된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담론의 구조와 담론 간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방법론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장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분석과 다양한 접근을 축적할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작성된 '일·가정 양립' 관련 온라인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분석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다. 2006년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공식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 논의를 본격화한 시점이자, 네이버 뉴스 댓글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온라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한 전환점이다. 2025년 2월은 본 연구의 댓글 데이터를 최종 수집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기간 설정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은 다음 절차를 거쳤다.

자료 수집은 Python 기반의 자동화 크롤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네이버 포털의 뉴스탭에서 '일·가정 양립'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연도별로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였다. 총 42,518건의 뉴스 기사가 확보되었으며, 분석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기사는 예를 들어 기업 복지 홍보, 문화·연예 기사, 단순 기념일 행사 보도 등이었다. 이러한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14,726건의 뉴스 기사가 선정되었다.

이들 기사에서 총 2,379,114건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댓글은 비정형 텍스트로 다양한 노이즈와 무관한 발언이 혼재되어 있어,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댓글만을 선별하는 포함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포함된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 구체적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경험, 찬반 의견, 정책적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한다.

둘째, 성별 돌봄 분담, 경력단절, 승진 차별 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경험이 표현된 댓글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일과 돌봄의 분배를 둘러싼 성별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인의 경력단절 경험을 공유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둘러싼 갈등, 제도와 현실의 괴리, 정책적 보완 요구 등을 드러낸 댓글을 포함하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제도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요구 등을 포괄한다.

포함 기준과 마찬가지로, 분석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댓글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사와 무관한 이야기나 일상적 대화, 욕설, 단순 감탄사, 비속어 사용 댓글, 동일 표현의 반복 등은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포괄적 표현이나 잡담성 댓글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794,999건의 댓글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수집 댓글의 약 33.4%에 해당한다.

최종 선정된 댓글 데이터는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먼저, 데이터를 Excel 파일로 정리한 후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NetMiner를 활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구조화하였다. 전처리는 텍스트 분석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핵심 주제와 밀접한 명칭 및 복합 명사를 지정어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승진', '맞벌이', '육아휴직', '정책', '정부' 등이 있다.

둘째, 유의어 통합을 통해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을 하나의 표준어로 정리하였다. 예컨대 '여자', '아내', '여', '엄마'는 '여성'으로, '남자', '남편', '남'은 '남성'으로 통합하였다.

셋째, 띄어쓰기 표준화를 실시하여 복합어를 일관되게 처리하였다. '경력 단절'과 '경력단절', '육아 휴직'과 '육아휴직'은 각각 '경력단절', '육아휴직'으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성이 높거나 의미가 중복되는 단어를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 '생각', '우리', '기사'와 같이 분석적 유의미성이 낮은 단어는 제외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처럼 지나치게 반복되어 결과에 편향을 줄 수 있는 단어도 일부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제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적용한 기준과 예시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한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핵심 단어와 주요 의견을 추출함으로써, 여론의 흐름

과 사회적 관심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온라인 댓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론 형성과 담론의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도별 뉴스 기사 수와 온라인 댓글 건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로 '일·가정 양립'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데이터의 분포와 집중 지점을 파악하여 이후 텍스트 분석 결과를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초 분석을 토대로 댓글에 담긴 여론의 구조와 주제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단계 텍스트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TF-IDF 기반의 단어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여, 댓글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시각화를 통해 핵심어를 직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정어 기반 동시출현 분석을 통해 '경력단절', '승진', '맞벌이'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의 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정어를 중심으로 한 의미망과 여론의 흐름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문서 내 단어들의 공출현 패턴을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조합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주제 구조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특히 다양한 개인의 경험과 의견이 혼재된 비정형 텍스트인 온라인 댓글 분석에 적합하다.

LDA 분석은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알고리즘에 의해 총 5개의 주요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각 토픽은 포함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주제를 명명하고, 내용적 해석을 통해 각 주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LDA 토픽 구조

<표 1> 자료 전처리 기준 및 적용 예시

전처리 기준	내용	예시
지정어	연구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명칭 및 복합명사를 지정하여 추출	- '경력단절', '승진', '맞벌이', '육아휴직', '정책', '정부' 등 - '여자', '아내', '여', '엄마' → 여성 - '남자', '남편', '남' → 남성 - 애, 자녀, 자식, 갓난아이, 첫아이 → 아이 - 나라, 국가, 대한민국, 한국 → 정부
유의어 통합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을 통합하여 표준화	- 기업 → 회사 - 제도 → 정책 - 혜택, 복지 → 지원 - 임금 → 월급 - 가족 → 가정 - 일자리 → 직장
띄어쓰기 표준화	복합어에 대해 일관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단어를 통일	- 경력단절, 경력 단절 → 경력단절 - 육아휴직, 육아 휴직 → 육아휴직 - 일가정양립, 일가정 양립 → 일가정양립 - 성차별, 성 차별 → 성차별 - 성평등, 성 평등 → 성평등
제외어	의미상 문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사람', '생각', '우리', '기사' 등) - 검색 키워드 '일·가정 양립'

시각화를 적용하여 토픽 간 관계와 주요 키워드 간 연결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담론 구조와 주제 간 상호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핵심 단어들이 실제 댓글 원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하고, 여론 흐름에 대한 해석의 깊이를 더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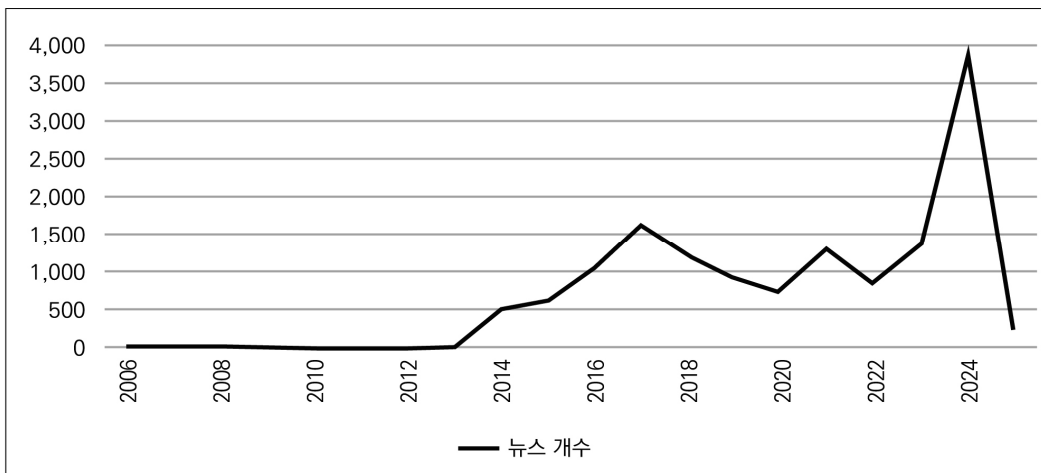
1. 일·가정 양립 이슈에 대한 연도별 뉴스 및 댓글 분포 분석

‘일·가정 양립’ 담론의 사회적 주목도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온라인 댓글의 연도별 분포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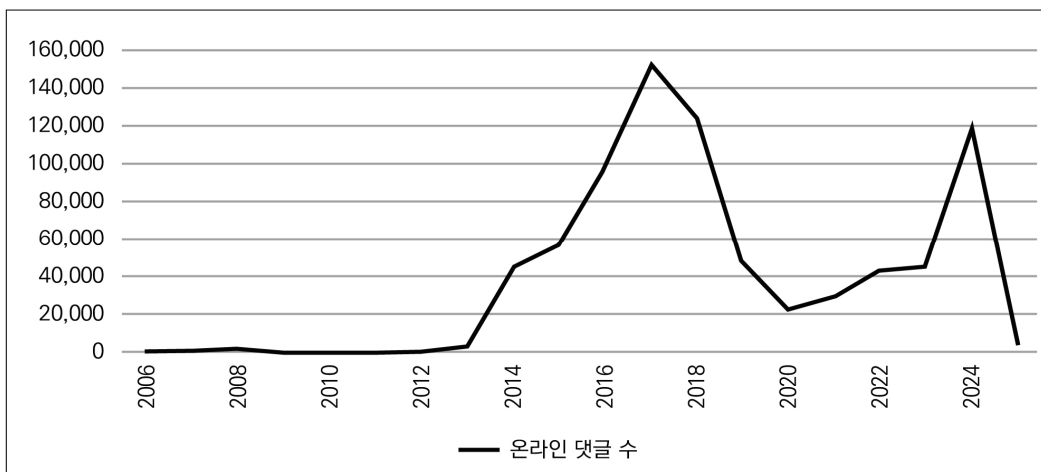
하였다. 연도별 뉴스 기사 수와 댓글 수의 변화 양상은 <그림 1>과 <그림 2>에 시각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감과 공론화 수준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4,726건의 뉴스 기사 중 기사 수가 급증한 시점은 2014년, 2016~2017년, 2024년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6~2017년의 증가는 육아휴직 제도 확산, 육아 참여 장려,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등 관련 정책의 활성화와 맞물린다. 이 시기에는 저출산 심화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이슈가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 전략과 경제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2017년은 제도적 논의의 지속과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은 또 다른 변곡점이었다. 초저출산 심화, 국가 소멸 위기 담론의 확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등 근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시기에 일시적으로 확산되었던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는 2022~2023년을 지나



<그림 1> 연도별 뉴스 기사 수 변화



<그림 2> 연도별 온라인 댓글 수 변화

며 기업에서는 대면 근무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 「2023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 직장인의 11.4%가 재택 또는 원격근무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근무 형태의 제도화가 지속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근로 환경의 유연화 논의를 재점화시키면서, 2024년 기사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댓글 수는 기사 수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45,172건, 2016년에는 97,828건, 2017년에는 152,263건의 댓글이 작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119,531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보 소비를 넘어, 대중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의견을 활발히 표출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14년과 2016~2017년에 기사와 댓글 수가 급증한 뒤 2018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관련 제도의 제도화와 담론의 일상화, 그리고 사회적 관심의 분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적 논의가 지속되면서 이슈의 범위와 틀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론화의 집중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4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초저출산 심화, 유연근무 확대,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은 단순한 개인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구 구조와 근로 환경 변화와 맞물린 주요 사회 이슈로 재부각되었다.

한편, 2025년 데이터는 2월까지 수집된 자료만 포함되어 전체 연도의 경향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연도별 분포 분석은 2024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2025년 자료는 보조적으로 참고하였다.

종합하면, ‘일·가정 양립’ 이슈는 2014년, 2016~2017년, 2024년에 사회적 주목도가 집중되었으며, 이는 정책 변화와 사회적 위기의식의 고조 등 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2014년 이후 확대된 육아휴직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이 기사 수 급증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가정 양립’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초저출산과 노동시장 변화라는 위기의식이 결합되면서 공적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온라인 댓글 내 주요 키워드 빈도 분석

온라인 댓글은 짧고 비정형적인 표현이 많아 특정 단어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단순 출현 빈도만으로는 문맥상 중요한 단어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댓글에서 주제와 밀접한 의미를 가지는 핵심어를 추출하기 위해 TF-IDF 분석을 활용하였다.

TF-IDF는 단어의 출현 빈도(Term Frequency)뿐만 아니라 전체 문서에서의 희소성(Inverse Document Frequency)을 함께 고려하여, 특정 문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이다(박상언, 강주영, 2023). 이 분석은 자주 등장하지 않더라도 특정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를 식별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TF-IDF 분석을 적용한 결과, 상위 50개 핵심 단어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정부’, ‘아이’, ‘여성’, ‘남성’, ‘일’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특히 ‘정부’는 196,173회(2.9%)로 가장 높은 TF-IDF 값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이’(193,659회), ‘여성’(182,082회), ‘남성’(129,900회), ‘일’(120,810회) 순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상위 50개 핵심 단어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담론에서 주요하게 인식되는 쟁점과

<표 2> 온라인 댓글 내 주요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	비율	순위	단어	빈도	비율	순위	단어	빈도	비율
1	정부	196,173	2.9%	18	월급	32,852	0.5%	35	인구	15,971	0.2%
2	아이	193,659	2.8%	19	세금	31,714	0.5%	36	휴가	15,123	0.2%
3	여성	182,082	2.7%	20	사회	31,611	0.5%	37	맞벌이	14,873	0.2%
4	남성	129,900	1.9%	21	육아휴직	25,834	0.4%	38	교육	14,094	0.2%
5	일	120,810	1.8%	22	가정	25,330	0.4%	39	퇴근	13,975	0.2%
6	돈	92,650	1.4%	23	육아	24,000	0.4%	40	집값	13,461	0.2%
7	결혼	80,615	1.2%	24	대통령	23,298	0.3%	41	남녀	13,369	0.2%
8	회사	69,534	1.0%	25	필요	22,714	0.3%	42	정치	12,037	0.2%
9	시간	52,383	0.8%	26	부모	22,308	0.3%	43	노동	11,863	0.2%
10	출산	50,981	0.7%	27	현실	21,393	0.3%	44	직원	11,838	0.2%
11	정책	50,154	0.7%	28	법	20,601	0.3%	45	평등	11,550	0.2%
12	지원	50,125	0.7%	29	해결	18,740	0.3%	46	문재인	11,372	0.2%
13	공무원	47,997	0.7%	30	저출산	17,788	0.3%	47	차별	11,352	0.2%
14	문제	44,264	0.6%	31	경제	17,673	0.3%	48	임신	11,332	0.2%
15	국민	44,104	0.6%	32	근무	17,517	0.3%	49	어린이집	11,124	0.2%
16	집	38,618	0.6%	33	군대	16,804	0.2%	50	시대	10,997	0.2%
17	직장	33,891	0.5%	34	능력	16,128	0.2%				

키워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출된 단어 중 일부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맥락적 해석이 어려운 단일 글자 단어(예: ‘돈’, ‘집’, ‘뱀’ 등)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전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어들은 ‘일·가정 양립’ 관련 담론의 주요 쟁점과 사회적 관심사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정부’, ‘여성’, ‘남성’, ‘아이’ 등의 단어가 상위에 포함된 점은, 일·가정 양립 이슈가 단순한 근로환경과 가정 내 역할 조율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 젠더 역할, 가족 구조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시각적 분석을 위해 생성한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론에서 어떤 단어가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일·가정 양립’ 댓글 워드 클라우드

3. 지정어 기준 동시출현 단어 및 출현 빈도

온라인 댓글은 짧고 비정형적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감정적 표현, 줄임말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키워드 빈도 분석만으로는 댓글 내 단어들의 사용 맥락이나 의미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빈도 분석은 여론의 표면적인 관심 주제를 드러내는 데는 유용하지만, 단어 간의 관계나 의미의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개념 중심의 지정어 기반 동시출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정어는 전체 댓글 중 빈도가 높거나, 선행연구 및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의 중심 개념으로 판단되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지정어는 ‘경력단절’, ‘승진’, ‘맞벌이’, ‘육아휴직’, ‘정책’, ‘정부’, ‘성차별’, ‘성평등’의 8개이며, 이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주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댓글 내 여론 흐름을 주제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한다.

각 지정어를 중심으로 동시출현 단어를 분석하면, 댓글 속

핵심 개념들이 어떤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떠한 의미망을 형성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지정어 기반 분석은 담론 내 핵심 개념이 주변 개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여론을 구성·확장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단순 동시출현 분석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무관한 단어 도출의 한계를 보완한다. 이처럼 지정어 중심 분석은 주제별 맥락을 정밀하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론이다.

분석 결과, 각 지정어는 상위 15개의 동시출현 단어와 함께 정리되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은 ‘여성’, ‘아이’, ‘남성’, ‘출산’, ‘육아’ 등과 자주 함께 등장하였고, ‘승진’은 ‘여성’, ‘남성’, ‘회사’, ‘아이’, ‘육아휴직’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아이’, ‘여성’, ‘남성’, ‘정부’, ‘돈’ 등이 주요 동시출현 단어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은 ‘회사’, ‘아이’, ‘남성’, ‘여성’, ‘정부’ 등과 함께 언급되었으며, ‘정책’은 ‘정부’, ‘아이’, ‘출산’, ‘지원’, ‘돈’ 등과 높은 동시출현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각 지정어가 어떤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은 해당 주제를 둘러싼 담론의 구조적 성격과 의미적 범위를 드러내며, 댓글 참여자들이 특정 키워드를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정어와 함께 언급된 상위 단어들을 살펴보면, 댓글 참여자들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주제를 주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거의 모든 지정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함께 출현하며, 경력단절, 승진, 육아휴직, 성차별 등의 논의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 ‘육아’, ‘출산’은 돌봄과 양육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회사’, ‘시간’, ‘복직’ 등의 단어는 근로 환경과 고용 조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정부’와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제도적 주제로 인식되며, ‘지원’, ‘예산’, ‘제도’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언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젠더 인식, 고용 정책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담론으로 나타난다. 즉, 가족, 노동, 성별, 제도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맞물려 작동하는 공론장의 중심 주제로 이해할 수 있다.

4.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통한 잠재 담론 구조 분석

본 연구는 온라인 댓글의 여론 구조와 주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특정 단어들의 공출현 양상을 바탕으로 주요 담론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사전 정의된 정답 없이 데이터 내부의 숨은 주제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본 분석에서는 총 794,999건의 댓글을 대상으로 LDA 모델을 학습한 결과, ‘일·

〈표 3〉 지정어 기준 동시 출현 단어 및 출현 빈도 결과

순위	경력단절		승진		맞벌이		육아휴직		정책		정부		성차별		성평등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여성	2,064	여성	1,165	아이	6,340	회사	5,913	정부	9,879	아이	5,566	여성	1921	여성	1,388
2	아이	1,451	남성	961	여성	4,605	아이	5,164	아이	7,572	정책	4,399	남성	1592	남성	915
3	남성	1,338	회사	709	남성	3,928	남성	4,385	출산	5,442	돈	3,913	정부	753	정부	619
4	출산	803	아이	684	정부	2,578	여성	4,283	지원	4,913	지원	3,911	차별	411	평등	341
5	육아	803	육아휴직	572	돈	2,521	정부	3,751	돈	4,621	회사	3,852	사회	322	경찰	290
6	정부	775	정부	509	집	2,410	출산	3,351	여성	4,050	국민	3,411	회사	275	정책	283
7	결혼	731	공무원	406	육아	2,377	정책	2,524	회사	3,312	출산	2,976	아이	271	아이	240
8	회사	609	시간	329	결혼	2,156	공무원	2,329	국민	3,015	여성	2,734	문제	257	남녀	233
9	돈	573	월급	325	부부	1,785	돈	2,098	문제	2,807	문제	2,474	남녀	255	여경	233
10	문제	564	능력	313	시간	1,635	지원	2,039	결혼	2,456	세금	2,256	군대	244	군대	227
11	직장	525	차별	313	가정	1,577	휴가	2,021	공무원	2,345	남성	1,893	페미	235	문제	212
12	사회	493	출산	304	부모	1,400	육아	1,874	세금	2,297	결혼	1,799	평등	200	필요	207
13	육아휴직	434	업무	271	지원	1,263	눈치	1,842	남성	2,255	직장	1,763	결혼	192	체력	200
14	지원	372	직장	266	외벌	1,239	직장	1,631	저출산	2,217	공무원	1,710	여대	171	사회	198
15	정책	368	돈	264	직장	1,192	문제	1,572	현실	2,139	시간	1,667	정책	170	출산	196

가정 양립과 관련된 온라인 여론이 다섯 가지 주요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① 정부 주도의 저출산 대응 담론

첫 번째 토픽은 ‘정부 주도의 저출산 대응 담론’으로, 전체 댓글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주요 키워드로는 ‘정책’, ‘출산’, ‘지원’, ‘세금’, ‘저출산’, ‘정부’, ‘해결’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정책적 대응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댓글 참여자들이 정부의 역할을 중요한 해결 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댓글 참여자들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일정 수준의 기대를 표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세금 사용에 대한 불신과 제도의 체감 효과 부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

이 아니라 주거, 고용, 육아 인프라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댓글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시각은 실제 댓글 원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결혼도 포기했는데 애 낳으라니. 현실을 너무 모른다”, “세금만 쓰고 성과 없는 탁상행정 그만했으면”, “출산을 떨어지는 건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다. 돈 좀 준다고 해결되잖나” 등의 발언은, 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금전적 지원으로는 출산을 유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은 정부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신뢰 부족을 반영하며,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단기적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력, 현실에 기반한 세밀한 접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표 4〉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통한 잠재 담론 구조 분석 결과

토픽	주제명(토픽명)	주제명 키워드 (의미범주)	상위 20개 키워드 단어	댓글수	
				(개)	(%)
1	정부 주도의 저출산 대응 담론	국가의 대응과 제도	정책, 출산, 지원, 세금, 저출산, 문제, 기업, 정부, 해결, 집값, 공무원, 자녀, 혜택, 대책, 사람, 아이, 연금, 출생, 예산	185,434	23
2	남성 입장에서 바라본 일·가정 양립	남성 관점	국민, 대통령, 민주당, 정부, 윤석열, 정권, 기사, 페지, 이재명, 정치, 대표, 남성, 군대, 혜택, 차별, 공정, 비판, 세금, 제도	158,049	20
3	여성 입장에서 바라본 일·가정 양립	여성 관점	결혼, 여자, 남자, 여성, 사람, 출산, 생각, 여대, 사회, 차별, 자식, 문제, 출산율, 남녀, 남성, 아이, 한국, 능력, 페미, 자기	205,934	26
4	모성 페널티와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한계	모성 페널티	육아, 회사, 휴직, 시간, 사람, 아이, 직원, 기업, 휴가, 근무, 채용, 부모, 출산, 학교, 엄마, 직장, 생각, 맞벌이, 개월, 현실	151,078	19
5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비전	저출산 문제 인식	나라, 우리, 인구, 국가, 대한민국, 한국, 경제, 세계, 미래, 일본, 국민, 국민, 사람, 소멸, 중국, 비상사태, 해외	94,331	12

② 남성 입장에서 본 일·가정 양립

두 번째 토픽은 ‘남성 입장에서 본 일·가정 양립’으로, 전체 댓글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군대’, ‘공정’, ‘차별’, ‘정치’, ‘정권’ 등으로, 이는 남성들이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한 역차별을 경험한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특히 다수의 댓글 참여자들은 군 복무 등 국가에 대한 공적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복지나 일·가정 양립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정책 불만을 넘어 젠더 갈등과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부는 성평등 정책이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각은 실제 댓글에서도 드러난다. “군대에 안 가기 때문에 동년배들보다 먼저 직장에 들어간 여성들에게, 다시 배려를 통해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도록 유도하는 풍토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견은 능력주의와 제도적 평등 간의 충돌을 지적한다. 또 다른 댓글인 “남자들 군대 갈 때쯤 되면 보육시설에서 2년만 봉사하게 해봐라.”는 군 복무와 돌봄 노동을 비교하며 실질적 형평성 확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에게 일·가정 양립 담론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을 초래하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양적 평등이 아닌 ‘기여와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며, 성평등 정책이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성의 삶과 경험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 설계와 공론화 과정에서는 남성을 갈등의 상대가 아닌 협력의 주체로 포함하고, 젠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여성 입장에서 바라본 일·가정 양립

세 번째 토픽은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일·가정 양립’으로, 전체 댓글의 약 2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요 키워드는 ‘여성’, ‘출산’, ‘차별’, ‘경력단절’, ‘결혼’ 등으로, 이는 경력 유지와 출산의 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여성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특히 젠더 불평등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돌봄 책임의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댓글에서 다양한 생활 경험과 감정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겠지만, 남편과의 가사 분담이 두 번째 이유 정도는 될 걸요.”라는 발언은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가사 노동의 비대칭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다. 또 다른 댓글인 “왜 살림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집안 건사해야 하는 주부를 혹사시키려 하는가?”는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여성의 정서적 탈진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 여성 댓글 참여자들은 단순한 제도 부족을 넘어 고정된 성별 역할 분담과 직장 내 문화적 장벽, 그

리고 정서적 부담의 누적이 일·가정 양립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제도적 보완에 그치지 않고, 가사·육아 노동의 성별 분담에 대한 사회문화적 전환을 동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직장 문화의 개선과 젠더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④ 모성 페널티와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한계

네 번째 토픽은 ‘모성 페널티와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한계’로, 전체 댓글의 약 19%를 차지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육아’, ‘휴직’, ‘회사’, ‘근무’, ‘아이’, ‘채용’ 등으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승진 제한, 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 직장 내 구조적 어려움을 반영한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제도 사용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시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댓글 속 생생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장려를 하면서도 육아문제에 대한 대안 하나 없는 나라...”는 발언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하며, 일과 육아의 병행이 여성에게 집중된 부담임을 드러낸다. “눅초가 된 엄마가 되려 아이를 억박지르는”이라는 댓글은 감정적·육체적 소진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이 아파도 조퇴하면 쇼 하는 줄 알게 생겼다”는 발언은 직장 내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무형의 조직문화와 인사 시스템은 여성의 권리 행사와 경력 지속 가능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제도적 보장만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설계는 법·제도의 마련뿐 아니라, 제도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비공식적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비전

다섯 번째 토픽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비전’으로, 전체 댓글의 약 12%를 차지하였다. 주요 키워드로는 ‘정부’, ‘미래’, ‘인구’, ‘경제’, ‘사회’, ‘정책’, ‘변화’, ‘출산’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저출산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선택을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댓글 참여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노동시장, 교육 체계, 부동산, 경제적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 분야와 연계된 종합적 문제로 인식하며, 단편적 대응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가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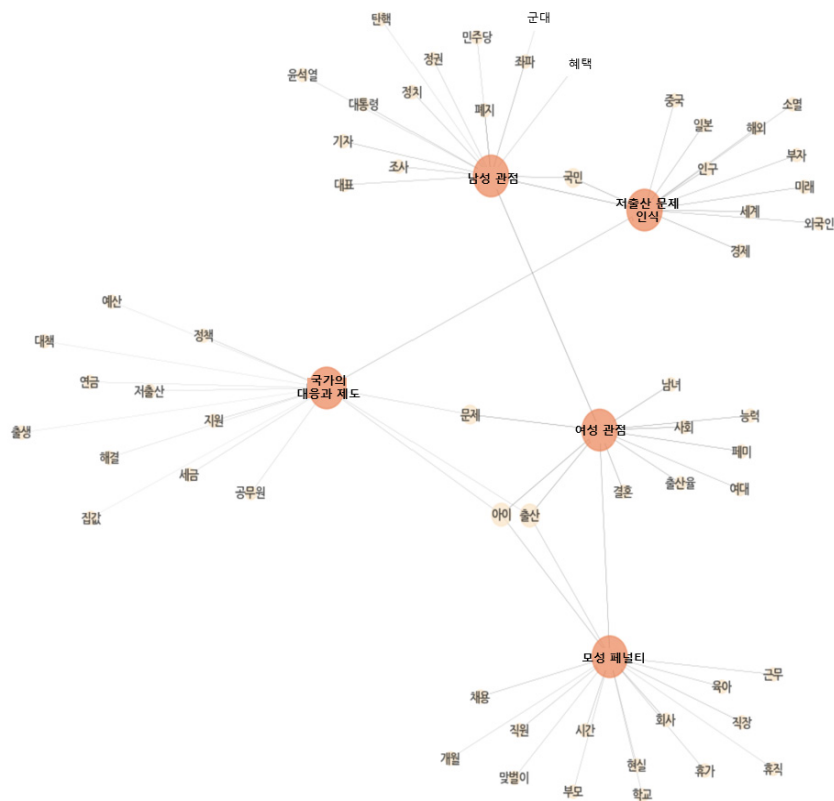
실제 댓글 원문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분명히 드러난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누가 투자하겠나. 자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발언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미래 설계의 어려움이 출산 기피의 근본 배경임을 지적한다. “양성평등보다는 보육과 사교육 부담이 기본 원인”이라는 댓글은, 이념적 논의보다 실질적 생활 기반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여론은 저출산 문제를 일회성 지원금이나 캠페인 중심의 단기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과 포괄적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출산율 회복은 복지나 출산 장려의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존립 기반을 재구성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며, 이에 따라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와 비전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댓글 참여자들의 인식과 논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LDA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상위 키워드 간 의미 연관성을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4>는 각 토픽의 핵심 키워드들이 온라인 댓글 내에서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각화 결과, ‘저출산 문제 인식’ 키워드가 다양한 담론군을 가로지르며 중심적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관점, 국가의 대응과 제도 등 서로 다른 담론을 연결하는 핵심 주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남성 관점’과 ‘여성 관점’ 키워드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저출산 문제 인식’이라는 공통 이슈를 매개로 간접적 연결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댓글에서 양 성별의 입장이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각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면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성 페널티’는 ‘여성 관점’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남성 관점’과는 별도의 담론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는 모성 페널티가 여성의 문제로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화 분석은 각 토픽 간 구조적 관계뿐 아니라, 온라인 여론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어떠한 의미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일·가정 양립’ 이슈가 젠더 갈등, 제도적 한계, 직장문화, 인구 정책 등 다양한 사회 구조와 긴밀하게 맞물린 복합적 담론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 수립에 있어 일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서, 젠더 공정성 확보, 직장 내 문화 개선,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림 4> LDA 기반 토픽 구조 시각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네이버 포털 뉴스 댓글 약 79만 건을 분석하여, ‘일·가정 양립’ 이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흐름과 구조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담론은 2014년, 2016~2017년, 2024년 등 특정 시기에 사회적 주목도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정책 도입 및 제도 논의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특히 2024년은 초저출산 심화와 재택·유연근무의 확산 등 근로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가정 양립’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적 의제로 재조명되었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정부’, ‘여성’, ‘남성’, ‘아이’ 등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해당 담론이 젠더 불균형, 돌봄 노동, 국가 정책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와 ‘정책’ 키워드의 반복적 등장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 사안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함을 보여주며, 이는 강은애(2017)가 지적한 ‘젠더 관점에서 공적 책임이 강조되는 담론 구조’와도 일치한다.

동시출현 분석에서는 ‘경력단절’, ‘육아휴직’, ‘맞벌이’ 등이 ‘여성’, ‘아이’, ‘회사’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젠더 역할 인식, 조직문화, 제도적 실효성 등 다양한 구조적 맥락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사용 과정에서의 현실적 장벽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경력단절은 기업문화와 직결된 구조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이 단순한 개인의 일상 문제를 넘어 노동 구조와 사회 제도 전반과 긴밀히 맞물린 사안임을 의미한다.

이는 정여진과 권순범(2023)이 제시한 “일·가정 양립은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 내 문화 개선과 성인지적 운영 체계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과도 맥을 같이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 일·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저출산 대응’, ‘남성의 제도 인식’, ‘모성 페널티와 직장문화’, ‘사회적 비전으로서의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하위 담론이 병존하였으며, 이들은 ‘저출산’이라는 중심 키워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온라인 담론이 다양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병렬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젠더 간 인식의 비대칭성과 공론장의 분절화를 드러낸다.

이러한 경향은 권안나(2025)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그는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논의에서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여전히 정책 수요자의 경험에 깊이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평등 보장을 위해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일·가정 양립 담론이 단일한 정책 접근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다양한 젠더 경험과 구조적 요인이 교차하는 복합 담론임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가정 양립’ 문제는 복지정책을 넘어 성평등, 노동 시장, 인구정책 등 사회 구조 전반의 재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경력단절,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온라인 공간에서는 젠더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일부 남성 참여자들은 군 복무와 돌봄 노동을 비교하며 실질적 형평성을 요구했고, 성평등 정책이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상호기여와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여성 참여자들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가사·육아 부담의 불균형을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와 사회적 돌봄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의 장기 전략과 사회 시스템 재편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고용 안정, 주거·교육 비용 완화, 실질적 일·가정 양립 보장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공존하였다.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잦았으며, 이는 정책 실행력 강화와 수요자 중심 접근, 투명한 집행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직장문화 개선과 제도 실행력 강화를 병행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촉진하며, 역차별 논란을 완화할 수 있는 젠더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와 사회적 돌봄 책임 분담은 여성의 탈진과 경력단절 완화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며, 저출산 대응은 고용·교육·주거 등 전반의 구조 개혁을 포함한 장기적·거시적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는 수요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댓글 분석에서 드러난 정책 수요는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 보장, 유연근무제 확대, 남성 돌봄 참여 유도, 직장 내 불이익 방지 규정 정비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인프라 확충, 성인지 조직문화 정착, 상호기여형 제도 설계 등 체감 가능한 정책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댓글이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공론장에서 형성되는 여론 구조를 실증적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 대상을 포털 뉴스 댓글에 한정함으로써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익명성과 감정적 표현으로 인해 일부 극단적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플

랫폼 데이터를 포함하고, 정성 분석과 결합하여 보다 다층적인 담론 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정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장민희, 김민선(2025).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기혼성인의 일·가정 양립 유형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인구통계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직장 요인, 가정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6(2), 151-173.
- 2) 강은애(2022).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권안나(2025).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방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9(2), 1-12. DOI : 10.22626/jkfma.2025.29.2.001
- 4) 김경례(2011). 일·생활 균형의 철학과 가치-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현대사회과학연구, 15(0), 1-18.
- 5) 김경식(2025). 유튜브 댓글의 도량 담론에 대한 의미연결망 및 토픽모델링 분석. 융합과 통섭, 8(2), 1-16.
- 6) 김민섭(2023).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세종: 한국개발연구원(KDI).
- 7) 김선미, 안희란(2016).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63-94. DOI : 10.22944/kswa.2016.18.2.003
- 8) 김영미(2024).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깊은 저출산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나라경제, 35(3), 56-57.
- 9) 김태연(2023). 코로나 19 전후 기혼여성의 우울에 관한 중단 연구: 일·가정양립 어려움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5(1), 9-32. DOI : 10.20970/kasw.2023.75.1.001
- 10) 김하영, 김민석(2024). 무엇이 정치 뉴스 댓글의 질을 결정하는가?: 기사 품질과 포털뉴스 플랫폼의 댓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8(5), 120-164. DOI : 10.20879/kjics.2024.68.5.004
- 11) 김혜경(201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여성연구논집, 21(2), 113-152.
- 12) 노동부(2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제4차(2008~2012). 과천: 노동부.
- 13)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서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14) 대한민국(20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15) 대한민국(201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16) 대한민국정부(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제1차(2006-2010). 서울: 대한민국정부.
- 17) 박귀천(2021).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법학논집, 25(4). DOI : 10.32632/ELJ.2021.25.4.583
- 18) 박민정(2019). 일·가정양립이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돌봄서비스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9), 66-81. DOI : 10.5762/KAIS.2019.20.9.66
- 19) 박상언, 강주영(2023). 파이썬 텍스트 마이닝 완벽 가이드: 자연어 처리 기초부터 딥러닝 기반 BERT와 트랜스포머까지. 과주: 위키북스.
- 20) 박수경(2024). 저출생 시대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 및 돌봄휴직 제도: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을 중심으로. 노사Focus, (203), 12-16.
- 21) 박원순(2021).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한 육아존중. 육아정책연구소, 68(0), 29-35.
- 22)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3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3) 박주희, 김선미(2024). 광주광역시 모·부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 및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광주: 광주여성가족재단.
- 24) 박지선, 이한울(2025). 악성댓글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11(1), 137-155.
- 25) 손영미, 황혜영(2022). 코로나 19 시기 워킹맘의 일과 가정의 양립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문화 및 사회문제, 28(3), 441-481. DOI : 10.20406/kjcs.2022.8.28.3.441
- 26) 심미승, 설선미(2014). 일·가정 양립정책 구축을 위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1), 373-402.
- 27) 엄혜경, 성상현(2017). 일·가정 갈등 그리고 가정-일 갈등이 기혼여성관리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양립 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3(2), 35-70. DOI : 10.33949/TWS.2017.93.2.002
- 28) 여성가족부(2008).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29) 오영민, 손현기(2023). 성주류화 정책 리더러시가 사회적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제도 인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3), 51-78. DOI : 10.53865/KSPA.2023.11.34.3.51
- 30) 오혜은(2024). 코로나 시기 근로 형태의 변화가 제주 여성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연구, 61,

- 77-94. DOI : 10.47520/jjs.2024.61.77
- 31) 유계숙(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11-125.
- 32) 윤원상(2023).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3) 윤태일, 이수안(2020). 파이썬 텍스트 분석하기. 서울: 늘봄.
- 34) 이수인(2023). 일·가정양립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23(3), 201-248.
- 35) 이정은, 유홍준(2017).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가정 양립 갈등 : 한중일 국제비교. 사회연구, 31, 9-32.
- 36) 이준석, 성민지, 박찬민(2025).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대회 참여에 대한 국내 여론담구: 데이터 크롤링과 뉴스 댓글을 통해. 문화예술융합연구, 6(1), 139-152. DOI : 10.47415/IRAC.6.1.9
- 37) 임다희, 탁성숙, 이선우(2018). 조직문화가 일·가정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조직학회보, 15(2), 29-56. DOI : 10.21484/kros.2018.15.2.29
- 38) 임민정(2024). 유보통합 추진 뉴스에 대한 온라인 댓글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8(4), 213-236. DOI : 10.32349/ECE RR.2024.8.28.4.213
- 39) 임정하, 조옥선(2024). 여성 관리자의 가족친화제도, 상사의 절차적 공정성, 복리후생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산업융합연구, 22(8), 95-103. DOI : 10.22678/JIC.2024.22.8.095
- 40) 장기용(2024). 출산을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118, 119-144. DOI : 10.20879/ct.2023.19.3.005
- 41) 장윤재(2023). 뉴스 댓글은 왜 여론의 지표로 여겨지는가? 여론 추정 단서로서 댓글의 기능과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회, 19(3), 5-53. DOI : 10.20879/ct.2023.19.3.005
- 42) 정여진, 권순범(2023).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4), 35-47. DOI : 10.22626/jkfma.2023.27.4.003
- 43) 최은미, 강제상(2021). 조직유형이 개인의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양립제도 디커플링 현상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3), 129-154.
- 44) 통계청(2023). 2023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9&act=view&list_no=427913에서 2025.07. 인출
- 45) 황인도(2024a). 노동시장과 초저출산의 4가지 연결고리. 나라경제, 35(5), 10-11.
- 46) 황인도(2024b).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의 심각성과 원인 분석.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88호), 34-4.
- 47)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48)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Longman.
- 49) Feldman, R., & Sanger, J.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Advanced approaches in analyzing unstructured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0) Foucault, M. (200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 M. Sheridan Smith, Trans.). Routledge. DOI : 10.4324/9780203604168
- 51)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 C. Quick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 143-16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 10.1037/10474-007
- 52)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DOI : 10.5465/amr.1985.4277352
- 53) OECD(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DOI : 10.1787/9789264032477-en

■ 투 고 일 : 2025년 06월 10일
 ■ 심 사 일 : 2025년 06월 30일
 ■ 게 재 확 정 일 : 2025년 08월 07일